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44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15,9-17)

###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15,9-17

신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보면 개인적인 질문들이 오고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 중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제가 되셨어요?’라는 질문입니다. 즉 사제성소를 가지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제성소를 가지게 된 동기를 신부님들로부터 듣다 보면 신부님들마다 각양각색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故) 김남수 주교님의 경우에는 계란이 너무 먹고 싶어서 사제성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교님이 어렸을 때는 계란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공소에 판공을 나오시면 꼭 매식사 때마다 신부님 밥상에 계란이 올라오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래서 주교님은 어린 나이에 ‘아 신부님이 되면 계란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고 그것이 당신이 사제성소를 갖게 된 동기였다고 하셨습니다.

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경우는 큰 장사꾼이 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뜻에 의해 사제성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부님의 경우는 아무 생각없이 친구 따라 성소자 모임에 놀러 갔다가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동기 사제들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동기로 사제성소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사제성소를 가지게 된 동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제가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 나보다 똑똑하고 성격이 좋고 신앙심이 강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분은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성소는 신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신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왜 당신이 누리시는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 주셨을까요. 이러한 면을 볼 때 참으로 신앙은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참으로 신앙을 선물과 은총으로 느끼고 있나요?

(수원교구 5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 "역대기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 역대기 상.하권

### 저자

바빌론 유배 이후의 역대기계 역사가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의 히브리어는 아람어로 된 표현이 많고 후대의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의 상상력은 회화적이고 풍부하다.

### 시대 배경

정경화 된 오경(기원전 400년경)보다 나중에, 집회서(기원전 180)보다는 앞서 저술된 것으로 본다.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후, 느헤미야와 마카베오에 의해 이루어진 두 차례 강력한 종교 개혁 사이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무기력한 시대였다.

### 편집목적

무기력해진 유대인들의 사기를 앙양시키시 위해서 과거 유다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고자 했다. 유다 공동체는 영화로운 왕국이며, 그 왕국의 주권자는 현존하시는 유일한 하느님이 시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 주요 내용

역대기 상권은, 아담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는 간략하게 보여 주지만(1-9장), 다윗의 통치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10-29장), 역대기 하권은 솔로몬의 통치(1-9장)와 유대 임금들의 통치를 다루고 있으며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에서 끝맺는다(10-36장).

## 공지사항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자주 묵주 기도를 바칩시다.

-6월7일은 성탄반 예비자 입교식입니다 사랑으로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 다음 달 성경말씀

### 마르 4,35-41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4,38-39)

\* 당신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또 갑작스러운 풍랑과도 같은 시련으로 삶이 온통 흔들릴 때 예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까?

## 소공동체 기도문

##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열마오 제 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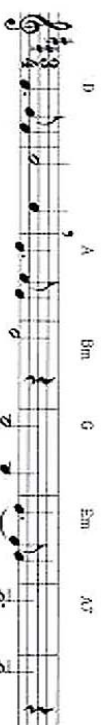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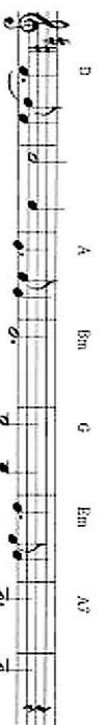
가도하며...  
저서 원 정 수  
적목 현 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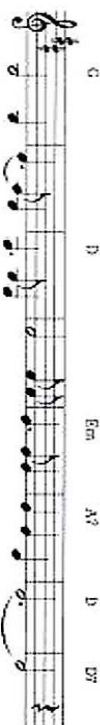
하느님 백 성 자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 무 아 -



중 - 기 하 고 공 사화 자 세 상 모 두에 게 -



마 음 모 - 아 기도하 고 함께 나 가져 천국 으 로 -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